

자활 위해 악취 참고 길러온 돼지 1만마리 불타 수십억 피해

‘육지속의 섬’ 나주 한센인촌 망연자실



나주시 노안면 현애마을 회관에서 마을 이장 이모(77) 할아버지가 회관 벽면에 게시된 육영수 여사 방문 당시 사진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그 마을은 세상과 단절된 듯 했다. 128세대 190명이 살고 6만 마리에 달하는 돼지를 키우는 마을이지만 1950년대 낡은 사진 속 마을과 흡사했다. 초저녁인데도 수십 개에 이르는 돼지 농장으로 가는 길은 변변한 가로등, 이정표가 없어 소방관들조차 길을 찾지 못해 순박한 마을을 하는가 하면, 차량 한 대가 지나기기에 버거운 도로를 악취로 가득 채워 숨을 쉬기조차 버겁다. 주민들은 즐기게 마을 환경 개선을 요구하지만 관련 당국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오랜 세월, 편견과 오해로 마을 한 켠을 어둠의 공간으로 채 살아온 사람들이 낯에 주민들의 섬섬함은 더하다.

한센인과 후손들의 집단 정착촌으로 불리는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3구, ‘현애원(현애마을)’ 얘기다. 고립된 육지의 ‘섬’으로까지 불리며 여전히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열악한 시설, 끊이지 않는 화재=마을은 돼지를 키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과 주변 정비부재로 이뤄지지 않아 특이한 화재가 발생했고

고 육영수 여사가 자활 도움 현애원 축사 5년새 5차례 화재 소방차 진입 힘들고 가로등 없어 도로 확장·시설 개선 대책 시급

그 때마다 피해가 컸다.

최근 5년새 발생한 화재는 모두 5차례. 돼지 농장에서 난 화재는 그 때마다 농장 전체를 태워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1만 마리에 이르는 돼지들이 죽어나갔다. 지난 14일 밤 9시에 발생한 화재는 28개동 중 20개를 홀러당 태워 1만 마리의 돼지가 불에 탔다. 나주경찰은 피해액이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화재로 한센인 3세 김씨의 농장은 전체가 불에 탔고, 아버지 대(代)부터 수십 년간 늘려왔던 돼지 1만여 마리가 전부 죽어버렸다. 현애원에서 돼지 사육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불이었다.

이처럼 화재가 날 때마다 대부분 새끼 돼지의 체온 유지를 위해 설치한 보온등이

나 온열 장판에서 비롯된 누전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마을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작은 불에도 피해는 커졌다.

불이 날 때 마다 소방관들은 일찍 출동했지만 피해를 줄이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수십 개에 이르는 돼지 농장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분간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폭 3m가 될까 싶을 정도로 비좁은데다 미로처럼 엉켜 있어 소방관과 소방차도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14일 화재 때도 출동한 소방관들은 마을 입구에서 현장까지 가는 길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한 소방관은 “출동대원들이 돌로 나뉘어 현장을 찾아 갔고 불을 끄고 난 뒤에도 빠져나오는 길을 찾기 힘들었다”면서 “아직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지원도, 싸늘한 시선도 여전=현애원 102개 농가에선 6만 마리에 달하는 돼지를 키워 먹고 산다. 외국에 수출도 하고 군에 납품도 할 정도가 됐다. 지난 1971년 육영수 여사가 준 새끼 돼지 20마리가 그 씨



14일 밤 9시에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김모(34)씨의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들이 진입하고 있다. (나주소방서 제공)

앗이 됐다.

마을 이장 이모(77)씨는 “그전 우리 한센인들은 통 돼지로 불리는 검정 돼지만 키웠는데 육영수가 품질 좋은 돼지를 가져다준 뒤부터 한센인들은 돼지 사육으로 번 돈으로 자식을 가르치게 됐다”면서 “육 여사님 추모비를 회관 앞에 세우고 해마다 추모제를 여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악취에도 돼지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마을 환경 등 시설 개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한센인이 사는 마을에

대한 무관심을 주된 이유로 지목한다. 여기에 나주시와 광주시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덜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화재가 발생한 김씨 농장의 경우 농장은 5m 벗어나기도 전에 광주시로 진입하게 된다. 김씨는 “불이 자꾸 나서 불안한 마음에 2차례 이상 행정기관에 가로등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이런저런 이유로 묵살당했다”면서 “그게 무리한 요구인가 싶어 섬섬하다”고 말했다.

/김형호·백희준 기자 khh@kwangju.co.kr

‘구조조정 갈등’ 조선대 처장단 일괄사표

조선대 이사회 주도의 대학본부 구조조정 등에 대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본부 처장단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노조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지만 이사회가 최소한의 협의·동의 절차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재홍 총장 체제의 조선대를 이끈 대학본부 처장 9명이 최근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사회가 대학본부 행정조직 개편을 주도하면서 발생한 학내 분란에 대한 책임성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처장단은 자체적으로 노조 등과 함께 구조조정을 작성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사회에 충분한 협의 차원의

시간을 요구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사표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의를 표명한 처장단은 기획조정실장과 교무·연구·학생·입학·총무·시설관리·대외협력처장, 취업지원본부장이다.

처장단 소속의 한 교수는 “현재는 정상적인 조직 개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학본부의 수장인 총장을 보좌해야 할 처장단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해 책임을 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사회는 지난 4일 현재 1실, 7차, 1본부, 1단 62개 팀 체제를 1실, 5차, 1본부, 1단 53개 팀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법인 사무팀도 1차 3개 팀을 1차 2개 팀으로 줄이는 내용의 행정조직 축소 개편안을 의결·발표했다. /채희종기자 chae@

채팅 앱 통해 만난 10대 남녀 청소년 성매매 탈선



○...두 달 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과 짝고 성매매를 알선한 못된 청소년이 경찰서행.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18)군은 지난 12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A모텔에서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예약한 노모(32)씨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이군은 지난 7월 중순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김모(16)양과 1대2 비율로 화대비를 나누기로 한 뒤 채팅앱에서 성매매 알선 문구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경찰은 노씨 등 성매수 남성 5명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 별만 16개야”...50일간 범죄 혐의만 12건 막가파 ‘동네 조폭’ 결국 쇠고랑

현금 빼앗고 폭행·협박 참다 못한 주민들이 신고 광주동부경찰, 50대 구속

“나 폭력전과 포함해서 별(?)만 16개야. 서방과 두목이었던 김태춘도 내가 키웠다고...”

광주시 동구 금동 단독주택 월세방에서 홀로 사는 김모(56)씨는 동네에서 어르신들과 상가 주민들을 마주치면 마치 폭력 등 자신의 전과가 훈장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다.

그는 동네에서 무법자(無法者)로 통했고 주민·상인들은 그를 피했다. 피해자들은 ‘×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심정이었을 터.

그의 범죄 행각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처럼 조직폭력배 못지않았다.

그는 지난 6일 동구 금동 한 사회복지센터에서 혼자 있던 사회복지사 이모(여·33)씨를 때릴 듯 위협한 뒤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갔다. 또 지난달 25일엔 동네 의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주민 김모(77)씨를 제지하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길이 15cm)로 위협했다.

지난 7월 말부터 자신의 집과 가까운 남광주 시장 과일가게 5곳에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들러 가뜰이나 어려운 상인들의 과일을 자신의 것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갔다.

상인 박모(59)씨가 항의하자 되레 우산으로 박씨의 눈을 찔러 다치게 했다.

그의 행패는 갈수록 대범해지고 잔인해졌다.

그의 행패를 참다 못한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를 이른바 ‘동네 조폭’으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해오던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이후, 주민들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냈다.

그가 지난 50일간 저지른 범죄 혐의만 공갈(3건)·폭행(3건)·절도(4건)·협박(1건)·주거침입(1건) 등이다.

그는 경찰에서 “동네 주민들이 나를 위협한 데 따른 정당방위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관심 국제기후환경 산업전이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정원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좋은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차선 포장도로 접 전면 85m 접 매매가 2억1800만원
- **다가구 주택 부지**
북구 오치동(도로 접) 대지 928㎡(280평) 매매가 4억8000만원

★ 금매물 접수합니다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53평 - 13층**
코너, 전망좋은 전체 오피스, 사무실 적합 매매 - 1억5500만원
- **29평 - 12층**
양동 하천 방향 전체오피스, 주거용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010,3180,8900

아파트형 콘도/ 별장/ 펜션 분양

문의, 010-6832-8900



-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전기, 수도, 가스 개별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공전**
화개장터, 상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1세대
- ★ **총 55세대 (18/28/56평)**
- ★ **28평 - 9000만원(융자 2300만원 포함)**

대명리조트와 교환 가능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